어린이도서 분류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문 지 현(Ji-Hyun Moon)**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Ⅰ. 서 론
Ⅱ.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및 어린이도서의 범주
1.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2. 어린이도서의 범주
Ⅲ.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자료구성 분석
1. 자료구성의 조사 방법
2.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현황 분석
3. 항목설정 및 전개수준의 원칙
Ⅳ. 어린이도서 분류법 개발
1. KDC와 어린이도서관
2. 어린이도서 분류법 개발 원칙
3. 세부항목 설정 및 전개내용
Ⅴ. 결 론

초 록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표준적인 어린이도서 분류법이 없어, 어린이도서관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어린이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린이도서 분류법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도서에 대한 범주를 조사한 후 어린이도서관 자료의 유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도서 분류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어린이도서 분류법은 KDC를 기본으로 하여 어린이도서관을 위해 새로이 설계된 형태로, 분류항목 설정과 주제별 전개수준에 있어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키워드: 어린이도서 분류법,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 한국십진분류법

ABSTRACT

Currently, our country doesn't have standard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whose developmen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library and children's books, and for this, not only the children's library working staffs but also users have to deal with a lot of discomforts and difficulties. This study was to take into account these facts of reality and attempted to develop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CLC) that is widely applicable to children's libraries. For this, the paper examined the category of children's books and analyzed classification conditions of children's library. Based on this examination and analysis, the paper developed CLC. This study finds its meaning in that the CLC developed by this study was based on KDC, was newly reformed for children's library, and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library and children's books as much as possible in the formation of classification category and progression level per subject; the author expects that it could actually be applied to classification of children's books regardless of the size and type of children's libraries.

Keywords: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CLC, Classification Scheme for Children's Libraries, Children's Library, Children's Books, KDC

---

* 이 연구는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lacodnjs@hanmail.net)(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교신저자)

• 접수일: 2009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9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09년 6월 22일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도서관 가운데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가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좋은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곳으로서,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함께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및 학습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도서관이 나름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료구성 및 시설구성에서부터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물리적인 공간과 서비스가 모두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도서관의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립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어린이도서 분류법이 없는 실정으로, 그로 인해 도서관 실무자들은 물론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도서관 현장에서는 국내의 표준분류표라 할 수 있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KDC를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단점과 한계가 발생한다. 그것은 KDC가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이 대규모 도서관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린이도서관은 대부분 소규모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류표 적용상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어린이도서관의 자료는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다. 즉, 그림책과 같은 형식의 자료가 많고 전체 자료에서 문학류의 편중현상도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자료들도 많지만, KDC에는 위와 같은 어린이도서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KDC 적용상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어린이도서관에서는 KDC를 변용 또는 간략화하여 사용하거나 자관의 도서관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분류표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불편과 어려움은 여전하다. 즉, KDC를 수정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로서 KDC의 한계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도서관 단위에서 분류표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미 개발된 분류표들도 분류체계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보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분류 현실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및 어린이도서의 범주를 조사하고 국내 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소장 자료의 유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린이도서 분류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여러 어린이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린이도서 분류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이후 연구과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먼저 어린이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전적, 법률적, 학술적 정의를 통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설립 및 운영주체/시설기준과 자료량에 따라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어린이도서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별 구분 및 인터넷 서점의 구분을 종합하여 어린이도서의 범주를 구분하였다.

둘째, KDC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류하는 도서관 중에서 외부에서의 목록검색이 가능한 3곳의 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소장 자료의 유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별 자료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량에 따른 분류표의 활용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즉, 세부항목 설정과 전개수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새로운 어린이도서 분류법을 개발하는 단계로, 앞서 수행하였던 분석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도서 분류법의 개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도서 분류법을 개발하였다. 어린이도서 분류법 개발에 앞서 KDC를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에 적용하였을 때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특히 주제항목의 예를 통해 적용상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3. 선행연구

어린이도서의 분류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47년에 박봉석에 의해 편찬된 「조선십진분류표」(KDCP)의 「아동도서분류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1] 「조선십진분류표」의 권말에 수록된 「아동도서분류표」는 소도서관용 분류표인 제1표와 마찬가지로 두 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대부분 동일하나, 3류의 어학・문학 및 5류의 사회・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주제에서 아동도서에 적합한 요목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별 도서관에서 일반도서와 구별하기 위하여 기호에 「아」를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태우는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64년에 발행된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2] 전체 학문의 주제를 43개의 류문으로 배정하고 있는 「도서분류표」에서 아동도서는 〈83/84 언어학, 문학작품〉 류문의 〈844.28, 844.29〉로써 한 곳에 집중하든가 또는 분류표에 의

1) 朴奉石 編, 朝鮮十進分類表(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 4280[1947]).; 원종린, "박봉석의 도서관사상 연구," In: 오동근 엮음,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대구 : 태일사, 2000), p.73.

2) 남태우, "북한의 군중도서관용 '도서분류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0), pp.71-92.

하여 내용별로 분류하는 동시에 해당 분류 기호 앞에 아동도서 기호〈ㅇ〉을 주어 한 곳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어린이도서의 분류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종성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에 비추어 KDC의 한계를 짚어보고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몇몇 학술적인 연구와 도서관 현장의 노력을 분석하였다.[3] 분석결과 실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분류체계를 창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분류표를 변용하거나 기존 분류체계하에서 별치기호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김천숙은 공공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림책의 분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의 그림책 분류기호 분석을 통해 KDC에 기반한 그림책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4] 분석결과 그림책 분류를 위한 분류 원칙과 KDC 수정 원칙을 제안한 후, 본표의 080(일반전집), 300(사회과학), 400(순수과학), 500(기술과학), 800(문학) 분야의 분류기호 및 주기사항을 수정하고 문학형식구분표와 상관색인을 수정 전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도서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린이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어린이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일반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 및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로 어린이도서분류법을 개발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Ⅱ.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및 어린이도서의 범주

1.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어린이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5]로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로 보고 있다. 현재 어린이와 유사한 연령층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18세 미만), 소년법상의 '소년'(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19세 미만) 등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는 항목에서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사람'[6]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는 시기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구분하는데, 영아기는 출생에서 1세경까지, 유아기는 2세경부터 5세경까지, 아동기는 6세경부터 12세경까지의 초등학교시기이다.[7]

3) 김종성, "어린이도서관 '실제적 필요'에 맞는 분류를 고민한다," 어린이와 도서관, Vol.1(2005), pp.142-161.
4) 김천숙, 공공도서관의 그림책 분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5)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서울 : 두산동아, 1999), p.4210.
6) 도로교통법 제2조 21항.

이상의 어린이 및 관련 용어들의 사전적, 학술적, 법적인 의미를 종합해보면, 어린이는 영아기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생인 12세까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인용문이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합성어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국내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전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봉사를 위해 설립된 도서관"[8]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arrod의 용어사전에서는 "어린이들의 이용을 위해 마련된 열람실"[9]로 정의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전적·법률적 정의를 종합해보면, 어린이도서관이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어린이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도서관은 ① 설립 및 운영주체/시설기준과 ② 자료량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설립 및 운영주체/시설기준에 따라 공립어린이도서관/공립어린이문고, 사립어린이도서관/사립어린이문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민관협력으로 설립되고 현재도 민간 또는 단체 위탁이 많은 기적의도서관과 2006년에 설립되어 국내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공립에서 별도로 구별할 수 있다.

설립 및 운영주체/시설기준 이외에도 자료량의 규모를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을 구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어린이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실제적인 자료규모와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량에 따른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표 1〉[10]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1〉 어린이도서관의 자료규모와 유형

장 서	공립(기적 포함)	사립(인표 포함)	계(%)	유형
5,000권 미만	1(3.0)	23(38.3)	24(25.8)	소규모
5,000권 이상~10,000권 미만	2(6.1)	29(48.3)	31(33.3)	
10,000권 이상~15,000권 미만	4(12.1)	6(10.0)	10(10.8)	중규모
15,000권 이상~20,000권 미만	3(9.1)	1(1.7)	4(4.3)	
20,000권 이상	13(39.4)	1(1.7)	14(15.0)	대규모
30,000권 이상	10(30.3)	0(0)	10(10.8)	
계	33(100)	60(100)	93(100)	

7) 한국유아교육학회 편, 유아교육사전 : 용어편(서울 : 한국사전연구사, 1997), p.349.
8) 사공철 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228.
9) Ray Prytherch, *Harrod's Librarian's Glossary & Reference Book*, 10th ed.(Aldershot, Hants, England : Ashgate, 2005), p.132.
10)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자료현황은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한 것임.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자료규모는 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한 공립어린이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립 및 기적의도서관은 70% 가까이가 2만권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 및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전체 85%가 넘는 도서관에서 1만권 미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5천권 미만의 도서관도 40%에 가까웠다.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에서의 자료량이 전체 면적과 시설 등의 규모와 관련성이 높아서 대체로 공간이 여유롭지 못한 사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자료가 많아지면 책의 진열이나 동선에 문제가 발생하여 도서관 공간이 복잡해지므로 일정 규모의 자료만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어린이도서관은 자료 현황에 기초하여 1만권 미만의 도서관을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1만권 이상~2만권 미만의 도서관을 중규모 어린이도서관, 2만권 이상의 도서관을 대규모 어린이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구분은 전적으로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자료량에 근거한 제안이지만, KDC의 적용범위와 방법을 다루는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상의 "10,000권 이하의 아동도서관(초등학교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2숫자(강목)를 전적으로 사용하되 … "[11]와 같은 내용과도 부합하고 있어 그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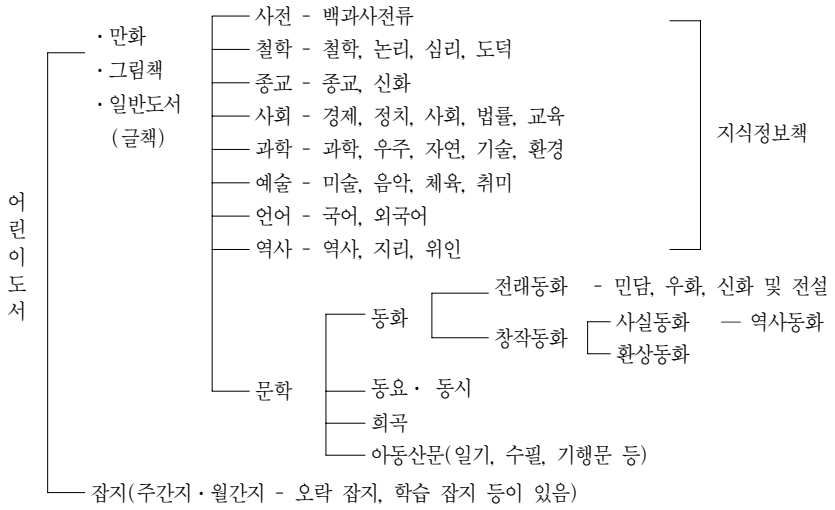
2. 어린이도서의 범주

어린이도서는 유아로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공급되는 책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어린이도서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어린이도서의 범주는 어린이도서를 연구하고 취급하는 분야나 학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출판학적 측면, 문헌정보학적 측면, 어린이문학 교육학적 측면 등 어린이도서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별로 그 구분이 다양하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어린이도서를 판매하는 인터넷 서점의 구분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학문분야별 구분과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인 교보문고의 어린이도서의 범주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이 어린이도서의 범주를 구분하였다.

만화, 그림책, 일반도서(글책)는 도서의 전반적인 구성이 만화로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글로 되어 있는지 등을 구분한다. 그림책이나 만화는 창작동화, 전래동화, 동시 등을 포함한 문학과 기타 다양한 주제의 지식정보책 등을 표현해주는 독특한 장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형태적 특성에 따라 1차 구분을 하고, 만화, 그림책, 일반도서가 담을 수 있는 여러 주제로

11) 韓國圖書館協會,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96), p.17.



〈그림 1〉 어린이도서의 범주

2차 구분하였다. 2차 구분에서 문학은 다시 일반적인 문학의 장르에 따라 동화, 동요·동시, 희곡, 아동산문 등으로 나누고, 동화를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어린이도서의 범주는 어린이도서 분류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Ⅲ.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자료구성 분석

1. 자료구성의 조사 방법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개발을 위한 문헌적 근거 즉, 세부항목 설정과 각 주제분야의 전개수준의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린이도서의 유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도서관의 실제적인 자료수집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의 출판통계를 조사하였다.

〈표 2〉는 2007년 한국출판연감 자료편에 수록된 어린이도서의 KDC 강목별 현황 목록으로 총 5,885종에 이른다. 주제별로는 문학의 비중(49.2%)이 가장 높고 순수과학, 역사, 사회과학 순으로 출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총류, 철학, 종교, 기술과학 등의 출판량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개발을 위한 문헌적 근거로 위의 어린이 출판도서의 유별 현황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에서는 학습용 도서의 구입을 최소화하고 있어, 출판 통계상의 유별 현황과 어린이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출판연감을 분석하면, 예술(600)에 해당되는 피아노, 플루트 등의 악기교본이나 언어(700)에 해당되는 한글, 한자,

영어 등의 학습교재 출판량이 많지만,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들 도서의 구입 비중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어린이도서에 부여된 KDC 분류기호의 수준이 강목으로 그치고 있어 세부항목의 설정과 전개수준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2007년 통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통계를 누적 집계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한계는 여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2007년 한국출판연감의 어린이도서 KDC 유별 현황[12)]

강목 / 주류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계
000(총 류)	0	0	2	28	0	0	0	0	0	0	30
100(철 학)	25	0	0	0	0	2	5	3	2	6	43
200(종 교)	2	13	2	77	0	0	0	0	0	0	94
300(사회과학)	7	0	62	2	19	0	2	316	39	0	447
400(순수과학)	540	77	8	0	15	23	0	31	5	206	905
500(기술과학)	1	11	0	3	0	3	7	0	0	7	32
600(예 술)	18	1	0	16	0	38	1	82	1	5	162
700(언 어)	0	138	13	1	211	0	0	0	0	0	363
800(문 학)	166	1,276	14	126	706	220	211	9	20	145	2,893
900(역 사)	167	259	3	0	4	0	0	0	218	265	916
계											5,885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한국출판연감」의 유별 현황을 활용할 수 없어 어린이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유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은 KDC 적용 도서관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상이한 분류표를 적용하게 되면 동일한 자료라도 완전히 다른 분류기호가 주어질 수 있어 총체적인 유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분류기호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최종적으로 3곳[13)]의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자료량은 6천~1만 4천권 정도의 규모로, 사립 2개관과 공립 1개관이다.

2.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현황 분석

조사대상 도서관간에 중복된 자료를 제외한 총 자료량은 16,771종이었으며, 이들 자료의 구체적인 강목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12) 〈표 2〉와 〈표 3〉에서 *표시는 세로로 나열된 주류기호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백의 자리 숫자를 의미함.

13) 서울에 소재한 A 도서관(10,239권 소장), 서울에 소재한 B 도서관(14,338권 소장), 경기도에 소재한 C 도서관(6,000권 소장)을 대상으로 함.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자료 가운데 문학류가 7,870종(4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학류 다음으로 자료량이 많은 주제는 사회과학, 순수과학, 역사 순이며, 철학, 종교, 기술과학, 예술 분야는 그 비중이 낮게 조사되었다. 특이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그 비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어학분야가 6.0%로 조사된 것은 조사대상 도서관마다 다양한 학습목적의 원서를 소장하고 있어 중복조사에서 제외된 양이 적기 때문이다.

〈표 3〉 조사대상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 현황

강목 / 주류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계
000(총 류)	55	6	72	647	13	65	7	9	399	0	1,273
100(철 학)	71	0	0	1	4	32	15	41	52	117	333
200(종 교)	13	97	21	277	0	0	0	0	1	1	410
300(사회과학)	25	1	174	134	49	4	11	1,073	635	10	2,116
400(순수과학)	1,201	136	28	16	97	66	1	84	51	258	1,938
500(기술과학)	28	108	24	95	8	24	5	2	1	75	370
600(예 술)	33	11	4	32	0	183	1	87	17	21	389
700(언 어)	6	63	3	1	926	0	0	0	0	0	999
800(문 학)	1,934	2,774	142	408	1,600	453	355	39	49	116	7,870
900(역 사)	95	342	23	5	4	1	1	0	128	474	1,073
계											16,771

다음으로 위의 강목별 자료 현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KDC 요목별로 조사하였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유별 자료의 비중이 높은 사회과학류만을 〈표 4〉로 제시하였다.

〈표 4〉 요목별 현황 : 사회과학류(300)[14]

요목 / 강목	**0	**1	**2	**3	**4	**5	**6	**7	**8	**9	계
300(사회과학)	2	3								20	25
310(통 계 학)	1										1
320(경 제 학)	102		1	1	3	48	5	14			174
330(사 회 학)	16	31	5		33		21	6	22		134
340(정 치 학)	30	1	8		1					9	49
350(행 정 학)	4										4
360(법 학)	8		1		1	1					11
370(교 육 학)	51	3	22	20	3	945	5	4	17	3	1073
380(풍 속)	172	15		7	2	6	3		428	2	635
390(국 방)	1		9								10
계											2,116

14) 〈표 4〉에서 **표시는 세로로 나열된 강목기호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백의 자리와 십의 자리 숫자를 의미함.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과학류는 문학류 다음으로 자료의 비중이 높은 주제영역으로, 어린이경제(320) 및 정치(340)와 일반적인 사회현상(330)에 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요목 중 375(유아 및 초등교육), 380(풍속), 388(민간전승)에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388은 전래동화 자료들을 여기에 분류한데다 속담과 수수께끼 등의 자료가 많이 출판되는 까닭이다. 375의 경우에는 정보그림책이나 개념그림책과 같이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은 유아 인지 및 유아 학습에 관련한 자료들이 교육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375.1(유아교육)에 분류되기 때문에 극심한 집중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와 풍습을 다루는 요목인 380도 꽤 많은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3. 항목설정 및 전개수준의 원칙

조사대상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현황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린이도서 분류법내의 항목설정 및 전개수준과 관련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설정과 전개수준의 원칙은 앞서 분석된 KDC 강목별 자료량을 근거로 하였으며, 먼저 자료가 1종이라도 출현하는 강목 수준의 주제는 향후 출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1종도 출현하지 않은 주제들은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3곳의 도서관에서 1종도 소장하지 않은 주제들은 앞으로도 어린이도서 분야에서 관련 자료들이 출판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개수준의 경우, 국내에는 자료량을 기준으로 분류기호를 어디까지 세분하느냐에 대한 표준지침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NDC 9판에서는 서가 1단 40책을 세분전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15] 일본의 木原通夫 등은 개가제에서 동일 분류기호를 갖고 있는 도서군은 서가 1단(25~30책), 많더라도 2단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6] 이 논문에서는 앞서의 두 기준의 평균값으로 볼 수 있는 50종을 세분전개의 범위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50종의 범위내에서는 분류기호가 동일한 자료라 하더라도 도서기호가 있어 자료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50종이 넘는 강목에서는 1개 이상의 요목을 전개하도록 하여 자료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칙을 통해 새로운 어린이도서 분류법내의 항목설정 및 전개수준과 관련된 기준과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

15)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 本表編, 新訂9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p.xxxi.
16) 木原通夫, 志保田務, 高鷲忠美, 資料組織法, 第4版(東京 : 第一法規, 2001), p.85.

〈표 5〉 어린이도서 분류법의 항목설정 및 전개수준

기준 / 주제	미출현 (항목설정 ×)	1종 ~ 50종 미만, (항목설정 ○)	50종 이상 (요목전개 필요)
총류(000)		010, 040, 060, 070, 090	000, 020, 030, 050, 080
철학(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00, 180, 190
종교(200)	240, 250, 260, 270, 280	200, 220, 290	210, 230
사회과학(300)		300, 310, 340, 350, 360, 390	320, 330, 370, 380
순수과학(400)		420, 430, 460	400, 410, 440, 450, 470, 480, 490
기술과학(500)	580	500, 520, 540, 550, 560, 570	510, 530, 590
예술(600)		600, 610, 620, 630, 640, 660, 680, 690	650, 670
언어(700)	750, 760, 770, 780, 790	720, 730, 700	710, 740
문학(800)		870, 880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90
역사(900)	970	920, 930, 940, 950, 960	900, 910, 980, 990

〈표 5〉에서 제시된 기준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해당 자료가 1종도 출현하지 않은 110(형이상학), 240(도교)~280(이슬람교), 750(독일어)~790(기타언어) 등은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관련 도서가 출판되거나 도서관에 입수되더라도 상위 주제에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료량이 1종에서 50종까지의 주제들은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KDC 분류체제 및 분류기호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특히 자료량이 많지 않은 주제들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는 강목으로 설정하거나, 인접주제끼리 통합시키거나, 또는 요목으로 하향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090(향토자료), 130(철학체계), 310(통계학), 460(광물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자료량이 50종 이상인 주제는 하위에 최소 1개 이상의 요목을 전개하거나 세분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부가하여 자료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34종의 자료가 군집되어 있는 330(사회학)은 사회문제, 노동문제, 사회복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요목으로 전개하였다.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항목설정 및 전개수준의 원칙과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총류, 사회과학, 순수과학, 문학, 역사 등은 전체 자료수가 많으며, 요목전개가 필요한 하위주제들도 많아 각 주제를 주류 항목으로 설정하고 하위주제의 전개도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과학과 예술은 전체 자료수는 많지 않지만 강목으로 설정할 주제들이 많아 주류 항목 설정 및 하위주제 전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철학, 종교, 언어 등은 전체 자료수가 많지 않으면서 특정 강목에 대한 자료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류 설정이나 하위주제 전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어린이도서 분류법 개발

1. KDC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 분류법을 개발하기에 앞서 KDC를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에 적용하였을 때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라 할 수 있는 KDC는 현재 관종을 막론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립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있었는데,[17]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를 채택한 이유와 그 적용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KDC가 갖는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공신력을 믿고 거부감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업무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를 적용하게 되면 공공 및 학교도서관이나 다른 어린이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목록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서분담이나 편목분담 등 다양한 협력관계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KDC 사용과 그 필요성 주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서, KDC가 아닌 기타 자관분류표나 자관개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18]를 사용하는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들이 KDC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였을 때 서로 다른 분류체계로 인하여 혼란을 겪게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한편,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를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주로 KDC가 갖는 표준분류표로서의 성격에서 기인되는 반면에, 그 적용상의 단점 및 한계는 대상이 되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있다. KDC 적용상의 단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에 소장된 어린이도서는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형태적 및 내용적 측면에서 이질적인 특성이 강하다. 즉,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서 취급하지 않은 만화, 그림책과 같은 형식의 자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료의 대부분이 동화와 옛이야기 등 문학류에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KDC에서는 주류 항목으로 전개되고 있는 철학, 종교, 언어 등의 자료의 양이 어린이도서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므로 학문분류를 기반으로 지식의 분야를 균형있게 포괄하고 있는 KDC 체계로는 문학류가 지배적인 어린이도서관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규모적인 특성에서도 KDC 사용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KDC는 처음부터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이 대규모 도서관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학

17) 설문조사를 통해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88개관 중 53개관이 KDC를 사용하고 있음.

18) '자관개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란 특정 어린이도서관에서 개발되었으나,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기적의 도서관 및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 분류표, 파랑새 도서관 분류표, 울산북구 기적의 도서관 분류표 등을 지칭함.

교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도서관이나 특정 이용자층을 보유한 특수도서관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19] 단지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에서 도서관의 성격, 자료량, 자료구성 특성에 따른 적용범위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 소규모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에 대규모 자료의 폭넓은 주제 범위를 대상으로 개발된 KDC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분류체계 운영상에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주제항목의 예를 들어 KDC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림책과 만화에 대한 분류 문제로, KDC에는 그림책과 만화를 분류할 만한 주류 항목이나 기타 하위항목이 없는 실정이다. 예술의 하위분야인 657.1에 만화 항목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만화의 방법 및 재료와 관련된 이론서들을 분류하게 되어 있어 다양한 주제의 만화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통 KDC 적용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만화나 그림책이 다루는 주제에 따라 일반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주제 분류를 하고 있었다. 즉, 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을 다루는 만화나 그림책은 주제별 분류 및 배가를 하고 창작만화나 창작그림책은 문학류로 분류해서 별도의 서가, 코너, 열람실 등에 배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제별 분류 원칙은 만화나 그림책이 다루는 내용과 주제에 대한 기호화는 가능하지만, 그 형태적인 특성 자체는 기호화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분류체계에 그림책이나 만화 항목을 갖는 도서관에서도 분류항목으로 그림책이나 만화라는 형태상의 기호화는 가능하지만, 정작 주제별 만화나 그림책은 주제별 분류 및 배가를 하고 있어 분류항목만으로 형태 및 주제가 기호화되지는 않고 있었다.

2) 어린이문학의 한 장르에 속하는 전래동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동일한 내용의 전래동화가 KDC 본표에 근거하여 388.3(전설)에 분류되거나, KDC 해설내용에 따라 문학류에 분류되는 등 도서관마다 상이하게 분류되고 있었으며, 한 도서관내에서도 일관성 없이 취급되고 있어 분류혼선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것은 전래동화가 창작동화와 함께 동화의 하위 장르로서 창작동화와 구별해서 분류 및 배가를 해야 할 만큼 독립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KDC 본표나 문학형식구분표 어디에도 관련된 항목이나 분류지시를 위한 구체적인 주기가 없기 때문이다.

3) KDC를 적용하여 어린이도서를 분류하였을 때 분류기호가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된다. 물론 자료량이 많아 청구번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목까지 분류를 적용하다보니 길어지기도 하지만, 자료의 주제에 대한 정확한 분류기호의 부가를 위해서는 세목까지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체로 KDC 본표에서는 세목에 배정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의

19) 韓國圖書館協會, 전게서, p.160.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이거나 출판량이 많은 주제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식물이야기(481.508), 동물이야기(491.508), 미스터리·불가사의(001.44)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어린이문학 장르에 대한 항목이 매우 한정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KDC 본표의 문학류 부분에서 아동문학과 관련된 분류항목으로는 한국문학(810) 아래에 동요·동시(811.8), 아동극(812.8), 동화(813.8)가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문학(830) 아래에 동화(833.8)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어린이 글모음이나 아동 산문 등을 포함한 기타 장르의 자료들도 그 양이 적기는 하지만 꾸준히 출판되는 상황이어서 성인 문학과 동일한 장르상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문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작동화를 그 내용에 따라 사실동화, 역사동화, 환상동화 등으로 세분하여 분류한다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자료량의 조절도 가능하게 된다.

5) 어린이문학 장르의 부족은 외국 문학을 분류할 때 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앞서 KDC에서 전개하고 있는 외국문학 항목은 일본동화(833.8)로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어린이 도서 출판경향을 살펴보면, 영어권 이외에도 프랑스와 독일어권 등의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이들 자료에 대한 분류항목은 물론 분류방법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없어 전체 아동문학 자료의 분류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기도 한다.

2. 어린이도서 분류법 개발 원칙

국내의 어린이도서관은 200~300평 이상에서 2만~5만권 이상의 자료를 소장한 공립어린이도서관에서부터 50평 내외에서 5천~1만권 정도의 자료를 소장한 사립의 작은 어린이도서관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특히 중소규모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자관의 도서관 규모와 자료수준을 고려하여 자관분류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모든 규모의 도서관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분류표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특정 규모의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분류표를 설계하는 것도 적용상의 한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새로 개발된 어린이도서 분류표는 적용 대상 도서관의 유형 및 규모는 한정하지 않되, 어린이도서의 특성과 어린이도서관의 자료구성상의 보편적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여러 어린이도서관에서 폭넓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어린이도서 분류법의 개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이나 주제의 논리적인 체계를 따르기보다는 분류표의 실용성을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국내의 표준분류표이면서 많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KDC를 기본으로 하되,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전체적인 구성 체계는

KDC와 같이 십진식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기호법도 아라비아숫자만을 이용한 순수기호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주류 항목 선정은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계하였다.[20] 먼저 어린이도서관의 주제별 자료량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자료비율이 낮았던 철학, 종교, 어학을 제외시키고, '인간 문화의 탐구'를 배정하여 이들 주제를 하나로 묶었다. 문학을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으로 구분하여 2개의 주류 항목으로 설정한 이유는 파랑새 도서관 분류표 및 자관분류표 개발 도서관에서 자주 채용되는 방법으로,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구분을 통해 문학의 자료량을 조절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정서에 맞는 책을 먼저 권한다는 본래의 취지도 동감할 만하다.

기술과학은 자료량이 많지는 않지만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을 하나의 주류로 통합하기에는 하위전개될 주제분야가 너무 많아서 의학이나 농학 분야의 어린이도서를 분류하기가 어렵고 또한 최근의 출판경향을 살펴보더라도 기술과학류의 주제들을 다룬 자료들의 출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주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주류 항목의 배정은 KDC와 자관개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참고하였는데, 먼저 여러 가지 지식, 사회 현상의 탐구, 자연 현상의 탐구, 생활과 과학, 예술 등 5개 항목은 KDC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다. 반면 철학, 종교, 어학을 포괄하는 인간 문화의 탐구는 100에, 기존에 KDC 900에 배정되어 있었던 역사는 200으로 배정하여 인문학적인 성격을 갖는 두 주제분야의 자료들이 인접배가 되도록 하였다.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주류번호는 기존의 800과 비어있는 700을 이용하였는데, 한국문학을 우선 배치하여 700(한국문학)과 800(외국문학)으로 배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900은 공기호로 남겨 두어 자관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하위전개의 수준은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에 언급된 사항 즉, 장서량 10,000권 이하의 아동도서관(초등학교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2숫자(강목)를 전적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항목에 따라 3숫자(요목)를 사용하고 장서량 10,000권 이상의 도서관은 3숫자(요목)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서량 30,000권 이상의 도서관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4숫자(세목) 또는 그 이하의 세목을 사용하도록 권장[21]한 점을 활용하여 요목 수준까지 전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소수점 한자리까지 전개하였다.[22]

다섯째, 세부항목 설정과 주제별 전개수준 즉, 강목과 요목 그리고 세목의 설정은 실제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일부 자관개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항목도 참고하였다. 앞서 〈표 5〉에서 제시된 항목설정 및 전개수준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1종도

20) 주류 항목의 선정은 유별 자료현황 분석 이외에도 설문조사나 면담조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21) 韓國圖書館協會, 전게서, pp.16-17.
22) 실제로는 면담조사를 통해 얻어진 실제 분류기호 적용수준 등을 함께 반영함.

출현하지 않은 주제들은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1종 이상~50종 미만과 50종 이상의 주제들은 강목 수준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특히 50종 이상의 주제들은 하위에 최소 1개 이상의 요목을 전개하거나 세분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어린이도서 분류법에 설정된 강목과 요목 그리고 세목의 총수는 각각 78개, 166개, 18개이다.

여섯째, 분류용어는 가능한 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KDC 분류용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나 초등학생용 백과사전 등을 중심으로 용어를 추출하여 KDC 및 자관개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분류명사와 비교하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어린이도서 분류표에서 설정된 주류 항목은 000(여러 가지 지식), 100(인간 문화의 탐구), 200(역사), 300(사회 현상의 탐구), 400(자연 현상의 탐구), 500(생활과 과학), 600(예술), 700(한국문학), 800(외국문학)이다.

3. 세부항목의 설정 및 전개내용

전절에서 제시된 개발 원칙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어린이도서 분류법의 조기표와 강목표는 〈표 6〉, 〈표 7〉과 같으며, 본표의 전문은 필자의 학위논문[23]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조기표(표 6 참조)는 KDC에서 채택하고 있는 8개중에서 어린이자료 분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구분표, 국어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 등 3개의 조기표만을 선정하여 수정 전개하였으며 보조표내의 분류항목의 수는 총 50개이다. 첫 번째 조기표인 지역구분표(Table 1)의 항목은 역사와 지리/여행, 인물 등의 항목들과 조기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신화(130), 건축의 역사(619), 국가별 회화(653) 등에서 기호를 추가하도록 부가 지시 설명을 첨가하였다.

또한 해당 주제의 언어적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국어구분표(Table 2)는 800(외국문학)에서 세 번째 패싯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특히 외국문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작동화의 경우 이미 본표에 국어구분표의 항목들이 전개되어 있다. 그 밖에 국어구분이 필요한 주제항목에서는 기호 조합을 위한 부가 지시사항을 설정하여 두었다.

세 번째 조기표인 문학형식구분표(Table 3)는 700(한국문학)과 800(외국문학)에서 두 번째 패싯의 구성요소로 작용하며, KDC의 그것을 어린이문학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변형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즉, 창작동화와 함께 동화의 하위장르라 할 수 있는 전래동화를 독립항목으로 배정하고, 그 종류인 민담, 우화, 신화 및 전설을 배정하였다. 또한 창작동화를 내용에 따라 사실동화, 역사동화, 환상동화 등으로 하위 세분함으로써, 분류장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동화의 종류에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문지현. 어린이도서 분류법 개발 연구(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8).

〈표 6〉 어린이도서 분류법 - 조기표

지역구분표(Table 1)	국어구분표(Table 2)
-1 우리나라 -2 아시아 -21 중국 -22 일본 -23 기타 동북아시아(타이완, 홍콩 등) -24 동남아시아(베트남, 캄보디아 등) -25 남부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등) -26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27 서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3 유럽 -31 고대 그리스 -32 고대 로마 -33 북부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등) -34 서부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등) -35 남부유럽(그리스, 스페인 등) -36 동부유럽(폴란드, 루마니아 등) -4 아프리카 -41 북부아프리카(이집트, 모로코 등) -42 중앙아프리카 -43 남부아프리카(남아공, 나미비아 등) -5 아메리카 -51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52 중앙아메리카(멕시코, 쿠바 등) -53 남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6 오세아니아, 극지방 -61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등) -62 극지방(북극, 남극)	-1 한국어 -2 중국어 -3 일본어 -4 영어 -5 독일어 -6 프랑스어 -7 스페인어 -8 이탈리아어 -9 기타 국어
	문학형식구분표(Table 3)
	-1 동요 및 동시 -2 전래동화 -21 민담 -22 우화 -23 신화 및 전설 -3 창작동화 -31 사실동화 -32 역사동화 -33 환상동화 -4 아동 희곡 -5 아동 생활문 -6 아동 웅변, 일기, 편지, 기행문(체험학습, 현장학습에 대한 글쓰기 등을 포함한다.) -7 아동 풍자 및 만담(개그, 온라인 만담, 콩트 등을 포함한다.) -8 아동 글모음 및 기타

다음으로 본표의 세부항목의 전개내용 및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① 000 여러 가지 지식

KDC를 기본으로 하여 어린이도서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백과사전과 함께 어린이도서 분야에서 많이 출판되는 퍼즐과 퀴즈집을 주기로 포함시켰으며, 070(신문, 언론, 저널리즘)은 350으로 옮겨 방송과 함께 배정하였다. 또한 030～050에 해당되는 백과사전, 강연집, 잡지류는 국어구분표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부가하였다.

② 100 인간 문화의 탐구

어린이도서에서 많지 않은 철학, 종교, 언어를 묶어 배정하였으며, KDC의 주류 기호를 적용하여 강목을 배정하였다. 특이사항으로 비교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신화의 자료량을 고려하여 별도의 강목인 130에 설정하고 지역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철학동화, 종교동화와 같이 문학의 형식을 빌어 철학이나 종교의 지식을 전달하는 자료들은 .7에 일괄 분류하도록 하여 전집류(8 또는 .8)와 함께 다른 자료들보다 우선 배가되도록 하였다.

③ 200 역사

KDC 900과 같이 역사, 지리, 인물로 구성하되, 210~250에 역사를 설정하고 260과 270에 각각 지리와 인물을 배정하였다. 하위항목의 대부분은 지역구분표를 적용하였는데, 역사는 강목 수준에서 지리와 인물은 요목 수준에서 대륙별 구분을 시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는 시대별 구분을 전개하여 관련 자료들의 분류에 대비하였으며, 나머지 특정 국가의 역사도 대륙내에서 하위세분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부가하였다.

④ 300 사회 현상의 탐구

KDC 300의 주제체계를 기본으로 따르면서 자료가 많이 분포된 강목위주로 하위주제를 설정하였다. KDC와 비교하여 큰 차이점은 개별 강목으로 독립되어 있는 정치(340), 행정(350), 법(360), 국방(390)을 340(정치, 행정, 법) 하나로 묶고 요목에서 관련 주제들을 전개하였다.

⑤ 400 자연 현상의 탐구

사회현상을 다룬 300과 마찬가지로 KDC 400의 기본체계를 따르면서 자료의 분포에 따라 하위주제를 설정하였다. 강목 수준에서의 변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460(광물학)을 459(암석)와 통합시켰으며, 대신 456(지사학)과 457(고생물학)을 하나로 묶어 460(자연사)을 배정하고 하위에 관련 주제를 전개하였다. 또한 식물과 동물의 하위항목 전개의 경우, 식물은 종류별로 항목을 설정하지 않은 반면에 동물은 종류에 따라 4개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식물 관련 어린이도서의 대부분이 특정 식물만을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식물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만, 동물과 관련해서는 새, 물고기, 포유류 등을 별개로 다루는 책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⑥ 500 생활과 과학

500 생활과 과학은 400(자연 현상의 탐구)과 비교하였을 때 분류항목수나 하위전개 수준이 비교적 적고 간단하다. 자료량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던 의학은 KDC의 하위 주제대로 전개하지 않고 인체, 질병, 위생과 건강 등 어린이도서의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용어로 변경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KDC의 540(건축공학), 550(기계공학), 570(화학공학)을 통합하여 540에 '건축, 기계, 화학'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하고 세부 주제는 각각 요목에 할당하였다.

⑦ 600 예술

예술 분야는 KDC 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르되, 650(회화)과 670(음악)의 하위항목을 다수 배정하였다. 건축의 역사와 국가별 회화에서는 지역구분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부가하였으며, 657(만화, 삽화)에는 만화자료가 아닌 만화에 대한 이론이나 만화를 그리는 방법 등에 관련된 자료를 분류하도록 설명을 포함시켰다.

⑧ 700 한국문학

700에는 한국문학을 배정하고 강목에서 문학장르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였다. 앞서 문학형식구분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문학의 장르에 따라 강목을 설정하였다. 특히 708 한국문학

전집 이외에도 720.8과 730.8에 각각 전래동화 전집과 창작동화 전집을 설정하여 장르별 동화에 따른 전집류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⑨ 800 외국문학

800(외국문학)의 강목전개는 700(한국문학)에서와 같이 문학장르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였다. 외국문학은 국어별 전개가 중요하지만 830(창작동화)에서만 요목 수준에서 국어구분을 적용하여 본표에 전개하고, 나머지 장르는 국어별 세분이 가능하도록 지시사항만을 부가하였다. 이것은 외국문학 분야에서는 동화를 제외한 시, 희곡 등의 문학장르에 해당되는 자료가 거의 출판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⑩ 900

어린이도서 분류표에서 900은 공기호로 남겨 두었으므로, 분류표를 적용하는 자관의 특성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7〉 어린이도서 분류법 - 강목표

000 여러 가지 지식	100 인간 문화의 탐구	200 역사	300 사회 현상의 탐구	400 자연 현상의 탐구
000 여러 분야 지식 010 도서(책), 출판, 도서목록 020 도서관, 정보 030 백과사전 040 강연집, 생활문집 연설문집 050 일반 잡지 060 일반 단체, 박물관 080 여러 분야의 전집 090 우리 마을 자료	100 인간 문화의 탐구 110 철학 120 종교 130 신화 170 말과 글	200 역사 210 우리 역사 220 아시아사 230 유럽사 240 아프리카 역사 250 아메리카 역사 260 오세아니아, 극지방 역사 280 지리, 여행 290 인물	300 사회 현상의 탐구 310 통계 이야기 320 경제 이야기 330 사회 이야기, 사회문제 340 정치, 행정, 법 350 신문 방송 360 직업의 세계 370 교육 이야기 380 풍속 문화 이야기	400 자연 현상의 탐구 410 수학, 산수 이야기 420 물리 이야기 430 화학 이야기 440 우주, 천문 이야기 450 지구, 기상 460 자연사 470 생명, 생물, 생태 480 식물 이야기 490 동물 이야기
500 생활과 과학	600 예술	700 한국문학	800 외국문학	900
500 생활과 과학 510 의학 520 농업 530 공업 일반 540 건축, 기계, 화학 560 인터넷, 컴퓨터, 전기 570 발명, 발견 590 생활 과학 (의식주)	600 예술 610 건축 620 조각 630 공예 640 서예, 펜글씨 650 회화 660 사진술, 사진집 670 음악 680 연극, 영화, 무용 690 오락, 운동	700 한국문학 710 동요 및 동시 720 전래동화 730 창작동화 740 아동 희곡 750 아동 생활문 760 아동 응변, 일기, 편지, 기행문 770 아동 풍자 및 만담 780 아동 글모음 및 기타	800 외국문학 810 동요 및 동시 820 전래동화 830 창작동화 840 아동 희곡 850 아동 생활문 860 아동 응변, 일기, 편지, 기행문 870 아동 풍자 및 만담 880 아동 글모음 및 기타	

V. 결 론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린이도서 분류법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개발원칙과 분류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체계의 논리성보다는 분류표 적용의 실용성을 높이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많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KDC를 기본으로 하되,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전체적인 구성 체계는 KDC와 같이 십진식을 따랐으며, 아라비아숫자만을 이용한 순수기호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주류 항목은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계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의 주제별 자료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자료비율이 낮았던 철학, 종교, 어학을 제외시키고, 인간 문화의 탐구를 선정하였으며, 문학은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으로 구분하여 2개의 주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주류 항목의 배정은 KDC와 자관개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참고하였으며, 000(여러 가지 지식), 100(인간 문화의 탐구), 200(역사), 300(사회 현상의 탐구), 400(자연 현상의 탐구), 500(생활과 과학), 600(예술), 700(한국문학), 800(외국문학)으로 배정하였다. 마지막 900은 공기호로 남겨 두어 자관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하위전개의 수준은 「改正 第4版 韓國十進分類法解說」에 언급된 권장사항과 면담조사를 통해 얻어진 실제 분류기호 적용수준 등을 반영하여 요목 수준까지 전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소수점 한자리까지 전개하였다.

넷째, 세부항목 설정과 주제별 전개수준 즉, 강목과 요목 그리고 세목의 설정은 어린이도서관의 유별 자료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일부 자관개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항목도 참고하였다. 유별 자료 현황에서 자료가 1종이라도 출현한 주제들은 강목으로 배정하였으며, 특히 50종 이상의 주제들은 하위에 최소 1개 이상의 요목을 전개하거나 세분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부가하였다. 또한 포함주기, 분류지시주, 세분지시주 등을 포함한 총 30개의 주기를 설정함으로써 분류표 적용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섯째, 본표와 함께 조기표도 개발하였는데, KDC에서 채택하고 있는 8개중에서 어린이자료 분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구분표, 국어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 등 3개의 조기표만을 선정하여 수정 전개하였다. 조기표내의 분류항목은 총 50개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어린이도서 분류법은 KDC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이 설계된 형태로, 분류항목 설정과 주제별 전개수준 결정에 있어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어린이도서관의 실제 자료비율과 유별 자료 현황 분석을 통해 주류와 세부항목 설정 및 주제별 전개수준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어린이도서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별 구분 및 인터넷 서점의 구분을 종합하여 어린이도서의 범주를 구분하는 등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분류법인 만큼 어린이도서관의 규모와 유형에 상관없이 어린이도서 분류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